

Safety News

제33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및 이흥지회장 재선출



안전협회는 지난 12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강당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통해 이흥지 회장을 재선출하였다.

이흥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4년은 협회 전 임직원이 하나되어 산업사회의 지역적 변화에 따라 기동성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음을 강조하며, 내실있는 안전관리 대행 및 진단·검사업무를 통한 양질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도 중점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확정하고, 비상임이사로 김정태 경총 상무, 이영순 서울산업대 교수, 이종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산업재해예방에 공이 많은 (주)KT 건설사업단 송상현 단장에 대한 감사패와 SK(주) 울산 COMPLEX의 성학용 상무 등 16명에 대한 표창장도 함께 수여되었다.

제3회 200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실시

안전협회는 지난 12월 10일 대행사업장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및 안전수준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회 200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가졌다.

위험성평가가 실시된 584개의 사업장 중 136개 사업장에 대한 사례가 이번 대회에 참가, 지역 예선을 통해 7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성남지회 김영찬 차장이 '화학제품제조업에서의 위험성 평가사례'를 발표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이흥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대회는 우리 협회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로, 우리의 실력과 경쟁력을 더욱 증진·발전시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사위원인 이영순 서울산업대 교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안전협회의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상당 수준 발전했음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한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구미지역 안전관계자 진주 마라톤대회 참가



2004년 12월 12일 진주시 진양호 일원에서 펼쳐진 진주 마라톤대회에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정용택 소장과 구미지회 배기완 차장을 비롯한 지역 안전관계자 20여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건강증진을 위해 참가하였다.

‘안전제일’, ‘산업재해를 예방합시다’ 라는 표어를 달고 하프코스 및 풀코스를 달린 이들은 전원 완주함은 물론,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안전을 작업현장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라톤대회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창원지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가저

안전협회 창원지회(김철석 사무국장)는 지난 12월 20일 최은영(세광병원장) 지회장을 비롯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의 안전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집단관리사업장(LG 창원공장, LG PHILIPS)의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사업장으로는 무재해 4배를 달성한 백산조경(안경립 대표)과 재성산업(이재명 대표)이 협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사업장으로는 동영전자(박노환 대표), (주)충무(권명무 대표), (주)대균(김기수 대표)이 받았다. 개인 공로 표창에는 성하기업(강육중 대표), 두성기업(유충근 대표), 동보기업(지상후 대표), 아워홈 창원2점(권남익 점장)이 지회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창원지회장은 한해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안전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에도 안전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재해 없는 일할 맛 나는 사업장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Safety News

(주)거양 제1공장 무재해 20배수 달성



(주)거양 제1공장(대표이사 윤해관)은 무재해 20배수를 달성하고, 지난 11월 18일 안전협회로부터 무재해 20배수 달성탑을 수여받았다.

1987년 1월 1일 설립하여 아연 전극인 아노드를 생산하는 (주)거양 제1공장은 1989년 1월 1일 무재해 개시후 지난 10월, 20배수를 달성한 것이다.

포항 관내 지역 중 최초로 무재해 20배수를 달성한 (주)거양 제1공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포항지역의 무재해 전도사로 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와 더불어, (주)거양 제1공장의 무재해 현장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한 방갑주 주임에 대한 이흥지 회장의 표창도 이어졌다.

대림요업주식회사, 2004년 안전경영 대상 수상

대림요업주식회사는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2004년도 제12회 안전경영대상 경공업 대기업을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림요업은 내장타일, 위생도기, 조립식욕실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으로 업종 특성상 분진에 의한 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작업환경개선과 노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무재해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2004년도 안전경영대상 경공업 대기업을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대림요업주식회사 창원공장 조대우 상무이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대림요업의 체질에 맞는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몸소 실천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